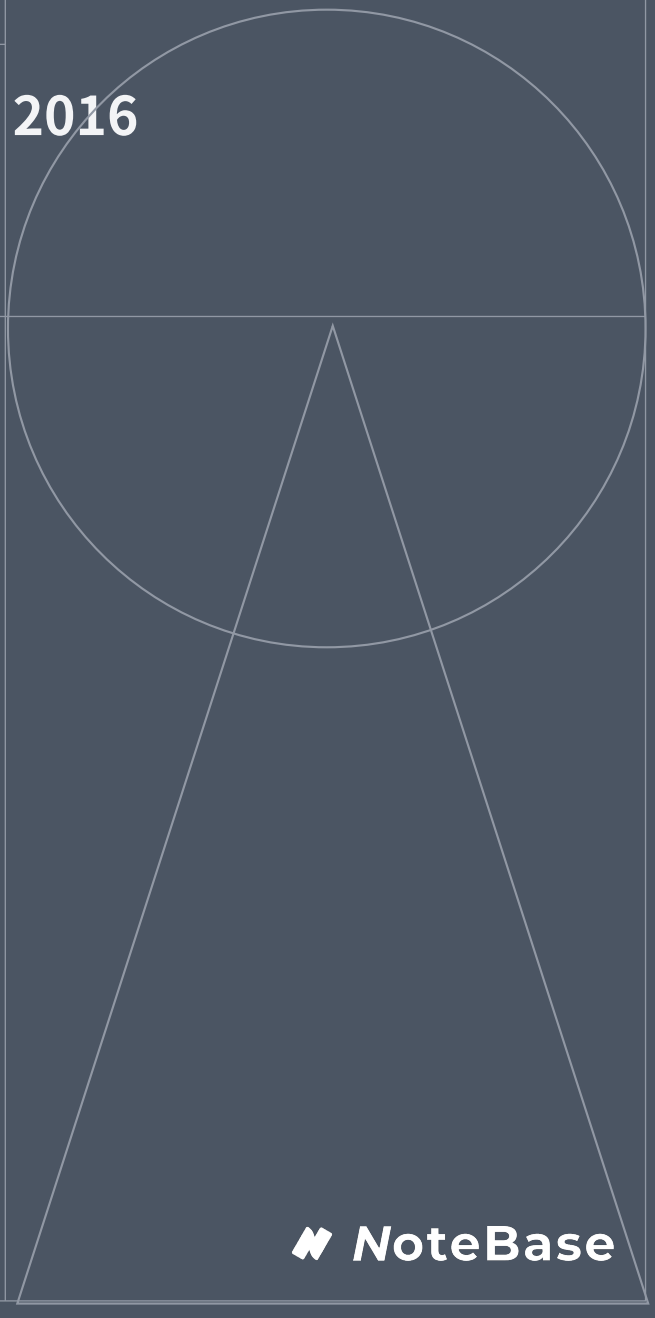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6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6

1.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은?**

① 눈이 침침해서 안경의 도수를 돋궜다.
② 정면으로 부딪친 차들이 크게 부서졌다.
③ 그는 분을 삭히느라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④ 이 사건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차츰 잊혀 갔다.
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과 형태가 비슷한 단어의 뜻을 구별하여 문맥에 맞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삭이다’는 긴장이나 화를 가라앉히거나 음식물을 소화한다는 뜻이고, ‘삭히다’는 김치나 젓갈 따위를 발효시켜 익힌다는 뜻이다.
‘돋우다’는 정도를 더 높인다는 뜻이고, ‘붙이다’는 사람을 딸려 보내거나 맡게 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도수를 돋우다’는 안경 도수의 정도를 높인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다.
② O — 두 차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이므로 힘 있게 맞닥뜨린다는 뜻의 ‘부딪치다’를 활용한 ‘부딪친’이 적절하다.
③ X — 분이나 화를 가라앉힌다는 뜻에는 ‘삭히다’가 아니라 ‘삭이다’를 써야 한다. ‘그는 분을 삭이느라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잊히다’는 ‘잊다’의 피동사이므로,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차츰 사라졌다는 문맥에 맞다.
⑤ O — ‘경호원을 붙이다’는 신변 보호를 맡도록 경호원을 딸려 보내거나 배치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삭히느라’는 발음이 비슷한 ‘삭이느라’와 혼동하기 쉽다. 감정은 ‘삭이고’, 김치나 젓갈은 ‘삭힌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적어가 분·화·긴장이면 '삭이다', 발효하여 익히는 음식이면 '삭히다'로 판단한다. 충돌 주체가 서로 맞닥뜨리면 '부딪치다', 어떤 힘을 받아 맞게 되는 피동 상황이면 '부딪히다'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분은 삭이고, 김치는 삭힌다.

NoteBase

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사는 좨야 하나?
② 봄 신상품을 선뵈어야 매출이 오를 거야.
③ 자네 덕에 생일을 잘 쇠서 고맙네.
④ 그는 오랜만에 고향 땅에 발을 딛는 감회가 새로웠다.
⑤ 장마 후 날씨가 개어서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본말과 준말을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음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인정되는 준말은 줄어든 형태대로 적는다. '죄어야'는 '좨야'로, '쇠어서'는 '쇄서'로 줄일 수 있지만, '쇠서'처럼 결합 과정에서 필요한 모음을 임의로 빼어 적을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좨야'는 '죄어야'가 줄어든 말이므로 '나사는 좨야 하나?'의 표기는 옳다.
② O — '선보이다'에 '-어야'가 붙으면 '선보이어야'가 되고, 이것이 줄어 '선보여야'가 되므로 표기가 옳다.
③ X — '쇠서'가 잘못된 표현이다. '생일을 쇠다'의 '쇠다'에 '-어서'가 붙으면 '쇠어서'이고, 이를 줄이면 '쇄서'가 된다. 따라서 '생일을 잘 쇠어서 고맙네' 또는 '생일을 잘 쇄서 고맙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딛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는'이 붙은 '딛는'은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으므로 옳다.
⑤ O — 날씨가 맑아진다는 뜻의 '개다'에 '-어서'가 붙은 '개어서'는 옳은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쇠서'를 자연스러운 발음만 따라 맞는 표기로 보기 쉽다. 그러나 '쇠다'와 '-어서'의 결합은 '쇠어서'이며, 준말로 쓸 때에도 '쇄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활용형을 기본형과 어미로 나눈 뒤 본말을 먼저 만든다. 그다음 국어에서 인정되는 준말인지 확인하면 임의로 모음을 탈락시킨 잘못을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죄어야→좨야, 쇠어서→쇄서이며 '쇠서'는 잘못이다.

NoteBase

3. 다음의 내용을 이해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삼다02 [삼:따] (삼아, 삼으니)
>
> 【…을 …으로】
>
> 「1」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들다.
> ¶ 고아를 양자로 삼다.
>
> 「2」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 ¶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다.
>
> 「3」 ((주로 '삼아' 꼴로 쓰여))(('…으로' 성분은 단독형으로 쓰인다))무엇을 무엇으로 가정하다.
> ¶ 그녀는 딸을 친구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

① '삼다02'는 동일한 철자를 가진 다른 단어가 존재한다.
② '삼다02'는 다의어에 속한다.
③ '삼다02'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삼다02'는 어간 모음의 길이가 변동한다.
⑤ '삼다02'는 부사어를 필수적인 문장 성분으로 요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전의 표제어 번호, 품사, 발음·활용 정보, 문형 정보를 읽고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의 수이며, 주어도 그 수에 포함한다. '삼다02'의 문형 '【…을 …으로】'는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주어까지 합쳐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표제어 뒤의 '02'는 같은 표기 '삼다'를 쓰는 다른 단어와 구별하기 위한 번호이므로, 동일한 철자의 다른 단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② O — 표제어 '삼다02'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삼아, 삼으니'처럼 활용하므로 동사에 속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두 자리 서술어'이다.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처럼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올바르게는 '삼다02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기본형의 발음은 '[삼⊠따]'로 어간 모음이 길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 '삼아, 삼으니'에서는 짧아지므로 어간 모음의 길이가 변동한다.
⑤ O — 문형 정보 '【…을 …으로】'에서 '…으로'는 생략하기 어려운 필수적 부사어이므로, '삼다02'는 부사어를 필수 문장 성분으로 요구한다.

오답 포인트

사전에 제시된 문형에 목적어와 부사어 두 개만 보인다고 해서 두 자리 서술어로 판단하기 쉽다. 서술어의 자릿수를 셀 때는 사전 문형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도 포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전의 문형 표시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보어·필수적 부사어를 확인한 뒤, 생략되어 표시되지 않은 주어까지 더하여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는 주어·목적어·필수적 부사어를 갖춘 세 자리 문형이다.

NoteBase

4. 다음 중 밑줄 친 표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이 맑으면 따르는 사람도 많은 법이다.
② 우리 집 강아지들이 발을 타기 시작했다.
③ 워낙 귀가 질긴 친구라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④ 마을 사람들 모두 코가 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⑤ 그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혀 차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신체 부위를 활용한 관용 표현의 실제 의미와 문맥상 쓰임이 맞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낱말의 겉뜻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밑줄 친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굳어진 의미가 문맥에 자연스럽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손이 맑다'는 재수가 없어 생기는 것이 없거나, 인색하여 남에게 물건을 주는 품이 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따르는 사람도 많다'와 연결한 것은 이 관용 표현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그는 손이 맑아 하는 일마다 생기는 것이 없었다.'처럼 쓴다.
② O — '발을 타다'는 강아지 따위가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강아지들이 걷기 시작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③ O — '귀가 질기다'는 둔하여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고 끈덕지다는 뜻이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문맥에 알맞다.
④ O — '코가 빠지다'는 근심에 싸여 기가 죽고 맥이 빠진다는 뜻이다. 의욕을 잃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⑤ O — '눈에 밟히다'는 잊히지 않고 자꾸 눈앞에 떠오른다는 뜻이다.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떠나지 못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맑다'를 청렴하거나 인품이 좋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면 '따르는 사람도 많다'가 자연스럽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손이 맑다'는 굳어진 관용 표현이므로 '맑다'의 일반적인 긍정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체 부위가 들어간 표현은 먼저 관용적 의미로 바꾸어 본 뒤, 그 의미를 원래 문장에 넣었을 때 앞뒤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이 맑다＝생기는 것이 없거나 남에게 후하지 못하다 / 발을 타다＝걷기 시작하다 / 귀가 질기다＝말을 잘 이해하거나 듣지 못하다 / 코가 빠지다＝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 / 눈에 밟히다＝잊히지 않고 떠오르다

NoteBase

5.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license - 라이선스
② carpet - 카펫
③ barricade - 바리케이드
④ carburetor - 카뷰레이터
⑤ towel - 타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영어의 실제 발음과 외래어 표기 원칙에 맞는 한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영어 철자를 한 글자씩 옮기지 않고 실제 발음을 바탕으로 한글로 적는다. 특히 철자 모양만 보고 불필요한 음절을 덧붙이지 않아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carburetor의 표준 표기가 '카뷰레터'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license는 '라이선스'로 적으므로 옳은 표기이다.
② O — carpet은 '카펫'으로 적으므로 옳은 표기이다.
③ O — barricade는 끝부분의 발음을 살려 '바리케이드'로 적으므로 옳은 표기이다.
④ X — '카뷰레이터'가 틀린 표현이다. carburetor는 '카뷰레터'로 적는다.
⑤ O — towel은 '타월'로 적으므로 옳은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carburetor를 철자 모양이나 익숙한 발음대로 '카뷰레이터'라고 적기 쉽다. 그러나 표준 표기는 중간에 '이'를 덧붙이지 않은 '카뷰레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어 철자를 그대로 읽어 만든 표기인지 먼저 살피고, 실제 발음에 없는 음절이 덧붙었는지 확인한다. 자주 출제되는 외래어는 표준 표기 자체를 짝으로 익혀 두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암기 포인트

carburetor는 카뷰레이터가 아니라 카뷰레터이다.

NoteBase

6. 다음 중 그 뜻이 가장 다른 것은?

① 發憤忘食
② 守株待兎
③ 自强不息
④ 切磋琢磨
⑤ 螢雪之功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자 성어의 뜻을 정확히 풀이하고, 노력·학업 정진을 나타내는 성어와 요행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發憤忘食·自强不息·切磋琢磨·螢雪之功은 분발, 끊임없는 노력, 학문과 인격의 수양, 어려운 환경에서의 면학을 나타낸다. 반면 守株待兎는 우연한 행운만 바라며 낡은 방식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發憤忘食(발분망식)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분발하여 밥 먹는 것조차 잊는다는 뜻이다. 이를 뜻이 다른 말로 보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노력과 정진을 나타내는 성어이다.
② O — 守株待兎(수주대토)는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다시 오기만 기다린다는 뜻으로, 요행만 바라거나 낡은 관습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비유한다. 노력과 학업 정진을 나타내는 나머지 성어들과 뜻이 가장 다르다.
③ X — 自强不息(자강불식)은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뜻이 다른 말로 보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노력을 나타내는 성어이다.
④ X — 切磋琢磨(절차탁마)는 옥이나 돌을 갈고 닦듯이 학문과 인격을 부지런히 닦는다는 뜻이다. 이를 뜻이 다른 말로 보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꾸준한 수양과 정진을 나타내는 성어이다.
⑤ X — 螢雪之功(형설지공)은 반딧불과 눈빛에 의지해 공부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지런히 공부해 이룬 공을 뜻한다. 이를 뜻이 다른 말로 보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고된 면학과 노력의 성과를 나타내는 성어이다.

오답 포인트

①·③·④·⑤는 구체적인 고사와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부지런한 노력이나 학업·수양이라는 공통 의미를 지닌다. ②의 '기다릴 待'에만 주목하지 않고, 노력 없이 우연한 행운을 기다린다는 부정적 의미까지 파악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성어를 한글 독음만으로 비교하지 않고 핵심 행동으로 바꿔 본다. '분발한다·쉬지 않는다·갈고닦는다·어려움 속에서 공부한다'는 노력의 의미군이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요행과 집착의 의미군이다.

암기 포인트

守株待兎는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기다림, 나머지 네 성어는 부지런한 노력과 정진이다.

NoteBase

7. 다음 밑줄 친 ㉠이 ㉡에 대해 느낀 감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오늘따라 ㉠나 혼자 집에 남아 있기가 싫어 남편과 함께 대학으로 놀러 나가는 길이었소. 집에서 대학까지 5리는 착실히 되건만 그 늙고 어수룩한 ㉡인력거꾼은 에누리도 없이 10전을 불렀소. 북경처럼 인력거 많고 북경처럼 인력거 삯이 싼 데가 세계에 둘도 없을 게요.
>
> 이 늙은 인력거꾼은 큰길까지 채 나가기도 전부터 기침에 가슴이 메어 뛰지를 못하는 것이었소. 내 인력거가 늦어지는 까닭에 남편의 교수 시간이 늦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 나는 "부싱(不行)"이라고 골을 내고는 인력거를 멈추고 다른 젊고 튼튼한 인력거꾼을 골라 탔소.
>
> 그 늙은이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내가 주는 동전 세 닢을-세 닢이래야 겨우 1전밖에 안 되는 것을-받고서는 그도 싫단 말도 없이 그 젊은 인력거꾼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며 비실비실 길가로 가서 앉는 것이었소.
>
> (중략)
>
> 지금쯤 이 찬 밤에 어느 담 모퉁이에서 그 늙고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기침에 목이 메어 있는지! 아니 영영 내 마음의 빚은 갚지도 못한 채 이 밤 안으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오.
>
>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이 밤에 이렇게 마음 쓰려 하는 것도 다 잊고 또다시 그 굶주리는 인력거꾼들에게 단돈 한 닢이라도 깎아 주려고 또다시 나는 인색을 부리고 살진 친구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진해서 내 주머니를 풀 것이오.
>
> 이것도 세상 살아가는 모순 중의 하나인가 보오.

① 인력거꾼이 인력거 삯을 싸게 불러 만족스럽다.
② 인력거꾼을 다시 만날까 봐 불안하다.
③ 인력거꾼에게 야박하게 대접해 미안하다.
④ 인력거꾼의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된다.
⑤ 인력거꾼이 인력거를 못 끌어서 짜증이 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 내적 독백을 근거로 ㉠이 ㉡에게 느낀 감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인물의 감정은 감정을 직접 나타내는 말뿐 아니라 행동과 독백에 드러난 원인까지 연결하여 판단한다. ㉠은 처음에는 싼 요금에 만족하고 인력거가 늦어져 짜증을 내지만, 이후 ㉡의 기침과 궁핍한 처지를 보고 미안함·연민·걱정을 느낀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이 에누리도 없이 10전을 부르자 ㉠은 세상에 이보다 더 싼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싼 요금에 만족한 감정으로 볼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을 다시 만날까 봐 불안하다'이다. ㉠은 다시 만나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을 가혹하게 대하고 품삯을 깎으려 한 자신의 태도에 죄책감을 느끼며, ㉡의 고단한 처지를 걱정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 ㉠은 ㉡을 '분신'이라고 꾸짖고 다른 인력거를 골라 탄 일을 떠올리며 '마음의 빚'을 말한다. 이는 야박하게 대한 데 대한 미안함이다.
④ O — ㉠은 ㉡이 기침 때문에 가슴이 메고 뛰지 못하며, 밤에 목이 메어 영영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 건강 악화를 걱정하는 감정이다.
⑤ O — ㉠은 ㉡이 뛰지 못해 인력거가 늦어지자 남편의 교수 시간에 늦을까 조마조마해하며 '분신'이라고 골을 낸다. 이는 인력거를 제대로 끌지 못하는 데 대한 짜증이다.

오답 포인트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다시 굶주린 인력거꾼들의 품삯을 깎으려 할 것이라고 반성하는 대목을, ㉡을 다시 만날까 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대목은 만남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이고 모순된 태도에 대한 자책을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정의 대상과 원인을 함께 확인한다. '조마조마하다'는 남편의 수업에 늦을까 하는 불안이고, ㉡에게 향한 감정은 짜증에서 미안함·연민·걱정으로 바뀐다. 선지가 감정의 대상이나 원인을 바꾸었는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감정 판단은 표현만 보지 않고 대상·원인·변화까지 연결한다.

NoteBase

8. 다음 글들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덕목을 강조해 왔다. 삼강오륜(三綱五倫)에 바탕을 둔 '충성', '효도', '우애'와 같은 단어는 지난 시절 지배 계층의 통치 논리로서 오늘날 그 실천 방법까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을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맞도록 손질해서 실천한다면 모두가 만고불변의 덕목으로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이들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하기만 한다면 '사랑', '성실성', '끈기', '참을성', '용서', '양보', '희생', '봉사'와 같은 온갖 덕목을 함께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가) 품위 있는 단어의 뜻이 천박하게 쓰이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다. '훌륭하다'는 추상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고귀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이때의 '훌륭한 사람'의 뜻을 한마디로 이르자면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될 것이다. 학문과 도덕과 예술을 두루 갖추고 그 덕성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만 인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인격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른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 따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수나 석가나 공자와 같은 성인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인격이다. 그러한 인격자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나) 그 동안 우리는 서양식 가치나 기능을 지나치게 받든 나머지 전통적 미덕의 가치를 많이 잃고 말았다. '효도'와 '우애'의 내면적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으며, '자유'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가 책임과 의무를 거들떠보지 않는 방종으로 흘렀고, '평등'의 고귀한 뜻을 살려 쓰지 못하는 바람에 모두가 천민으로 평준화하는 불행에 휩쓸리고 있다. 서양식 덕목이라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가령, 평등의 뜻을 실천하면서 누구나가 '교양', '품위', '예절', '질서', '양보', '용기'와 같은 미덕을 발휘한다면 모든 국민의 의식 수준은 상향 평준화 쪽으로 발전하겠지만, 반대로 나간다면 그 결과는 하향 평준화 쪽으로 뒷걸음치고 만다. 그러한 국가사회는 자연히 천박한 사고방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다) 평교사로 정년을 맞은 어느 초등학교 교원이 기자에게 자랑스럽게 밝힌 이야기 한 도막이 떠오른다. 자신은 비록 평교사지만 제자 중에는 국회의원, 판검사, 대학 교수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지위나 권력을 얻은 제자를 무심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 듯하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 사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학자, 위대한 종교가, 유명한 예술가가 많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뛰어나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무조건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흔히 훌륭하다는 말을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로 착각하고 '뛰어나다', '위대하다', '유명하다'는 뜻과 혼동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학 교수는 상당히 뛰어나고 위대하고 유명하기는 하나 그들을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마)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훌륭하다'는 말의 뜻이 '뛰어나다', '위대하다', '유명하다'는 뜻과 구별되지 않고 쓰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잠시 생겼다 없어지고 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지나치게 높이 받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곧 인격이다. 인격은 평생을 두고 노력한다 해서 쉽게 얻을 수도 없으며, 한번 얻은 인격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인격은 훌륭한 것이다. 성인들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세상을 밝혀 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① (가)-(나)-(다)-(라)-(마)
② (가)-(나)-(다)-(마)-(라)
③ (나)-(가)-(다)-(마)-(라)
④ (나)-(가)-(라)-(다)-(마)
⑤ (나)-(다)-(가)-(마)-(라)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문단의 중심 내용과 지시 표현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 구체적 논의의 예고, 일반적 설명, 일화, 결론의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나) 서양식 가치를 잘못 받아들여 전통적 미덕의 뜻을 잃은 현실을 지적하고, 그 미덕들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글의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가) 품위 있는 단어의 뜻이 천박하게 쓰이는 구체적 사례로 '훌륭하다'를 들고, 이를 인격과 연결한다.
(라) 뛰어남·위대함·유명함과 훌륭함은 같지 않으며, 훌륭함은 인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다) 국회의원·판검사·대학교수가 된 제자를 곧바로 훌륭하다고 여긴 교사의 일화를 제시하여 앞의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마) '이처럼'으로 앞의 논의를 종합하며, 돈·권력·지위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인격이 진정한 훌륭함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왜 이 순서인가: (가)의 '사례를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다'는 말은 (나)의 일반적 문제 제기 뒤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고, (마)의 '이처럼'은 앞선 설명과 일화를 모두 받은 뒤 글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나)보다 먼저 두어 구체적인 단어 사례가 전체 문제 제기보다 앞서고, (다)의 일화도 (라)의 일반적 의미 구분보다 앞선다. 틀린 배열 '(가)-(나)-(다)-(라)-(마)'는 '(나)-(가)-(라)-(다)-(마)'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가)가 (나)보다 앞선 데다, 결론인 (마) 뒤에 다시 일반 설명인 (라)가 이어져 글이 이미 맺어진 뒤 논의가 재개된다. 틀린 배열 '(가)-(나)-(다)-(마)-(라)'는 '(나)-(가)-(라)-(다)-(마)'로 고쳐야 한다.
③ X — (다)의 일화를 (라)의 일반적 의미 구분보다 먼저 제시하고, 종합 결론인 (마)을 마지막이 아닌 (라) 앞에 둔다. 틀린 배열 '(나)-(가)-(다)-(마)-(라)'는 '(나)-(가)-(라)-(다)-(마)'로 고쳐야 한다.
④ O — (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가)에서 '훌륭하다'를 구체적 논의 대상으로 삼은 뒤, (라)의 일반 설명을 (다)의 일화로 뒷받침하고, (마)에서 '이처럼'으로 전체 내용을 종합한다.
⑤ X — (다)의 교사 일화가 (가)의 '훌륭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논의 예고보다 먼저 나오며, 결론인 (마) 뒤에 (라)의 일반 설명이 놓인다. 틀린 배열 '(나)-(다)-(가)-(마)-(라)'는 '(나)-(가)-(라)-(다)-(마)'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다)와 (라)는 모두 '훌륭하다'의 뜻을 다루어 순서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라)는 유명함·위대함과 훌륭함을 구별하는 일반 설명이고, (다)는 그 기준으로 교사의 생각을 비판하는 구체적 일화이므로 (라)가 먼저 온다. 또한 (마)의 '이처럼'은 앞의 논의를 종합하는 결론 표지이므로 (마)는 마지막에 놓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제 제기와 결론 문단을 찾고, 그 사이에서는 '일반 설명 → 구체적 사례'의 관계를 확인한다.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다'는 예고 표현과 '이처럼' 같은 요약·결론 표현을 순서 판단의 고정점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문제 제기 → 논의 대상 제시 → 일반 설명 → 구체적 일화 → 종합 결론의 흐름이다.

NoteBase

※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구 고령화, 미혼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시대에 이르렀다. 그중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시장은 약 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최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펫팸족'이라는 단어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가 합쳐진 조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뜻한다.

(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립하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어울림 축제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몸집이 작고 귀여운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 색깔이 예쁘거나 우는 소리가 고운 새와 물고기, 진귀한 뱀이나 도마뱀, 거북이 등을 반려동물로 많이 길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서 함양이나 치유 목적으로 여치나 귀뚜라미 등 곤충을 기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라) 영화 <마지막 황제>는 주인공 부의가 통 속의 귀뚜라미를 꺼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 그 여운이 깊었다. 귀뚜라미는 우리나라에서도 친근한 곤충으로 예술작품 속에서 주요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고단한 궁궐 생활을 하는 궁녀들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고향을 생각하는 수단으로 귀뚜라미를 길렀다는 기록도 있다.

(마) 그리고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세계 최초로 왕귀뚜라미가 노인들의 우울증과 인지기능을 개선시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곤충 또한 노인들의 정신과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줘 앞으로 곤충이 반려동물로서 그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바)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반려곤충을 키우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좋고 재미가 있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게 된다고 한다. 곤충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문학, 언어, 예술, 역사, 종교, 레크리에이션 등 우리 문화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그리고 앞으로 왕귀뚜라미처럼 심리치유 효과 규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찾아낸다면 곤충들이 반려곤충으로 환영받는 시대가 더욱 빠르게 열릴 것이다.

9.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반려동물의 증가 원인
②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③ 곤충에 대한 이해와 반려동물로서의 가능성
④ 반려곤충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
⑤ 반려곤충이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정답 5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지문에 직접 제시되었거나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지문 밖의 정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여러 문장을 연결해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문이 다루지 않은 분야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실일 수 있더라도 정답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인구 고령화, 미혼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를 국내 반려동물 인구 증가의 배경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증가 원인을 알 수 있다.

② O — (가)의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고, (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③ O — (다)~(바)는 곤충이 과거부터 정서·문화적 대상으로 활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귀뚜라미 등의 심리 치유 효과가 연구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곤충에 대한 이해와 반려동물로서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④ O — (마)는 왕귀뚜라미가 노인의 우울증과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바)는 반려곤충이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좋다는 보도를 제시한다. 따라서 반려곤충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⑤ X — 글은 곤충의 문화적 활용, 정서·심리적 효과, 반려동물로서의 가능성을 다루지만 먹이사슬상의 위치나 개체군의 역할 등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며, 올바르게는 ‘반려곤충의 문화적 활용과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곤충이 생태계의 구성원이므로 ⑤가 상식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배경지식이 아니라 지문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문에는 곤충의 생태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어를 지문의 특정 문단과 대응시킨다. 대응되는 문장이나 타당한 추론 근거가 없고 지문 밖의 배경지식에만 기대는 선지를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 일치 문제는 상식의 참·거짓이 아니라 지문 근거의 유무로 판단한다.

NoteBase

※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구 고령화, 미혼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시대에 이르렀다. 그중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시장은 약 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최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펫팸족'이라는 단어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가 합쳐진 조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뜻한다.

(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립하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어울림 축제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몸집이 작고 귀여운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 색깔이 예쁘거나 우는 소리가 고운 새와 물고기, 진귀한 뱀이나 도마뱀, 거북이 등을 반려동물로 많이 길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서 함양이나 치유 목적으로 여치나 귀뚜라미 등 곤충을 기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라) 영화 <마지막 황제>는 주인공 부의가 통 속의 귀뚜라미를 꺼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 그 여운이 깊었다. 귀뚜라미는 우리나라에서도 친근한 곤충으로 예술작품 속에서 주요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고단한 궁궐 생활을 하는 궁녀들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고향을 생각하는 수단으로 귀뚜라미를 길렀다는 기록도 있다.

(마) 그리고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세계 최초로 왕귀뚜라미가 노인들의 우울증과 인지기능을 개선시켜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곤충 또한 노인들의 정신과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줘 앞으로 곤충이 반려동물로서 그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바)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반려곤충을 키우면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좋고 재미가 있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게 된다고 한다. 곤충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문학, 언어, 예술, 역사, 종교, 레크리에이션 등 우리 문화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그리고 앞으로 왕귀뚜라미처럼 심리치유 효과 규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찾아낸다면 곤충들이 반려곤충으로 환영받는 시대가 더욱 빠르게 열릴 것이다.

10. 다음의 내용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곤충과 공존하며 생활해왔다. 사람들은 곤충에 대해 해충이다, 익충이다 가리기만 했을 뿐 자세하게 곤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설이나 구전을 통해 곤충의 신비함이 전해져 왔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곤충이 지닌 참다운 의미와 인간에게 끼친 영향 등을 담은 곤충문화가 형성됐다.

① (가)와 (나) 사이
② (나)와 (다) 사이
③ (다)와 (라) 사이
④ (라)와 (마) 사이
⑤ (마)와 (바) 사이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삽입 문단의 중심 화제와 앞뒤 문장의 연결 표현을 근거로 글의 전개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다) — 과거부터 최근까지 곤충을 포함한 여러 동물을 반려동물로 길러 온 양상을 제시한다.
삽입 문단 — 인간과 곤충의 오랜 공존 및 그 과정에서 형성된 곤충문화를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라) — 영화와 고려 시대 기록을 들어 귀뚜라미가 문화와 생활 속에서 활용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마)·(바) — 곤충의 심리·정서적 효과와 반려곤충으로서의 미래 가능성을 설명한다.
왜 이 순서인가: 삽입 문단의 '곤충문화가 형성됐다'는 일반적 설명이 먼저 제시되어야, 뒤의 (라)에 나온 귀뚜라미의 예술적·생활문화적 활용이 그 구체적 사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현대의 반려동물 시장과 '펫팸족'을, (나)는 국내 반려동물 축제를 다룬다. 이 사이에 곤충문화의 역사를 넣으면 현대 반려동물 문화에 관한 흐름이 갑자기 곤충 이야기로 좁아진다. 틀린 위치 '(가)와 (나) 사이'는 올바르게는 '(다)와 (라) 사이'이다.
② X — (나) 뒤에 넣으면 곤충의 역사와 문화가 먼저 제시된 다음 (다)에서 다시 '과거에는'으로 시작하여 시간적 설명이 겹치고, (다)의 반려곤충 화제와도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위치 '(나)와 (다) 사이'는 올바르게는 '(다)와 (라) 사이'이다.
③ O — (다)가 곤충을 반려동물로 길러 온 과거와 최근의 변화를 제시하고, 삽입 문단이 이를 인간과 곤충의 오랜 공존과 곤충문화 형성으로 확장한다. 이어지는 (라)는 귀뚜라미가 영화·예술·생활 속에서 활용된 사례를 보여 주므로 일반 설명 뒤에 구체적 사례가 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④ X — (라)와 (마)는 귀뚜라미의 과거 문화적 활용에서 최근 심리치유 연구로 이어지는 한 묶음이다. 그 사이에 곤충문화의 일반론을 넣으면 (마)의 '그리고 최근에는'이 이어 받는 대상이 멀어진다. 틀린 위치 '(라)와 (마) 사이'는 올바르게는 '(다)와 (라) 사이'이다.
⑤ X — (마) 이후에는 이미 최근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뒤에 곤충문화의 형성 과정을 다시 설명하면 글의 시간이 과거로 되돌아간다. 또한 (바)는 곤충의 정서적 효과와 미래 가능성을 종합하므로 그 앞의 결론부 흐름을 끊게 된다. 틀린 위치 '(마)와 (바) 사이'는 올바르게는 '(다)와 (라) 사이'이다.

오답 포인트

삽입 문단의 첫 문장에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는'으로 시작하는 (다) 앞에 놓기 쉽다. 그러나 (다)가 먼저 곤충을 반려동물로 기른 사실을 제시하고, 삽입 문단이 '곤충문화'라는 일반 개념으로 확장한 뒤, (라)가 귀뚜라미의 구체적 문화 사례를 보여 주는 전개가 더 긴밀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삽입 문단의 중심어가 앞 문단에서 도입되는지, 뒤 문단이 그 중심어의 구체적 사례인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곤충을 기른다'에서 '곤충문화'로 확장되고, 다시 '귀뚜라미 문화'의 사례로 구체화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화제 도입 → 일반 설명 → 구체적 사례의 순서가 삽입 위치 판단의 핵심이다.

NoteBase

11. 다음 중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어림잡다 - 어림재다
② 변덕스럽다 - 변덕맞다
③ 장가가다 - 장가들다
④ 흠가다 - 흠지다
⑤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형태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복수 표준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복수 표준어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가 널리 쓰이고 규범에 맞아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문항에서는 두 말이 실제로 모두 표준어인지, 한쪽에 비표준어가 섞였는지를 가려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어림잡다'는 표준어이지만 '어림재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어림재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어림잡다' 또는 같은 뜻의 표준어인 '어림치다'이다. 따라서 이 조합은 복수 표준어가 아니다.
② X — '번덕스럽다'와 '변덕맞다'는 말이나 행동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바뀌는 성질을 나타내는 복수 표준어이다. '복수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른 판단은 '두 말 모두 표준어이다'이다.
③ X — '장가가다'와 '장가들다'는 모두 남자가 혼인하여 남편이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복수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른 판단은 '두 말 모두 표준어이다'이다.
④ X — '흠가다'와 '흠지다'는 모두 물건에 흠이 생긴다는 뜻으로 쓰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복수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른 판단은 '두 말 모두 표준어이다'이다.
⑤ X — '기세부리다'와 '기세피우다'는 모두 기세를 드러내어 떨친다는 뜻으로 쓰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복수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른 판단은 '두 말 모두 표준어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어림재다'를 '어림잡다'와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어림잡다'와 짝을 이루는 복수 표준어는 '어림치다'이며, '어림재다'는 표준어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쌍의 의미가 비슷한지만 보지 않고 두 형태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다. 한쪽이라도 비표준어이면 복수 표준어 조합이 아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어림잡다·어림치다는 표준어이고, 어림재다는 비표준어이다.

NoteBase

12.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홍수가 나서 집이 모두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다.
②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③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니? 칠칠맞지 못하게.
④ 어머니를 도와드리려는 게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⑤ 그가 떠난 지가 오래지만 아직도 너무 그립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와 합성 용언, 조사, 의존 명사의 표기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붙여 쓰기도 허용된다. 다만 앞말이 합성 용언이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뒤의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떠내려가다'는 하나의 합성 동사이므로 '떠내려 가버렸다'처럼 그 내부를 띄면 안 된다. 또한 합성 용언인 '떠내려가' 뒤의 보조 용언 '버리다'는 띄어 써야 한다. 올바른 표기는 '홍수가 나서 집이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이다.

② O
'놀아'와 보조 용언 '나다' 사이에 보조사 '만'이 들어갔으므로 '놀아만 나는구나'와 같이 '나다'를 띄어 쓴다. '공부는'의 '는'도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O
'그게'는 '그것이'의 준말이므로 붙여 쓴다. '철철맞다'는 한 단어이고, 그 뒤의 부정 표현 '못하다'는 '철철맞지 못하게'와 같이 띄어 쓴다.

④ O
'도와드리다'는 한 단어이므로 '도와드리려는'으로 붙여 쓴다. '게'는 의존 명사 '것'에 조사가 결합한 '것이'의 준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깨뜨려 버렸다'가 원칙이지만, '-어' 뒤에 이어지는 보조 용언은 '깨뜨려버렸다'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⑤ O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형 '떠난'과 띄고, 조사 '가'는 '지'에 붙여 '떠난 지가'로 쓴다. '오래지만'은 형용사 '오래다'의 어간 '오래-'에 어미 '-지만'이 붙은 형태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가버렸다'만 보고 보조 용언의 붙여쓰기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먼저 본용언이 합성 동사 '떠내려가다'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떠내려가 버렸다'가 맞다. ④의 '깨뜨려버렸다'는 붙여쓰기가 허용되어 틀린 표기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합성 용언인지 확인한 뒤 보조 용언과의 경계를 판단한다. 앞말이 합성 용언이거나 중간에 조사가 끼면 보조 용언을 반드시 띄고, 의존 명사는 띄되 그 뒤의 조사는 붙인다.

암기 포인트

합성 용언 뒤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떠내려가 버렸다. 조사 뒤 보조 용언도 띄어 쓴다: 놀아만 나는구나.

NoteBase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중세 국어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글자에 'ㆆ'이 있다. 이 글자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적은 글자이다. 'ㆆ'을 흔히 '여린히읗'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ㅎ'에 비해 여리다는 의미를 지닌다.

① 초성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만든다.
② 초성자는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든다.
③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한다.
④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든다.
⑤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글자를 완성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훈민정음의 자음 제자 원리인 상형과 가획, 모음의 상형, 종성 표기, 음절자 결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은 ㆆ과 ㅎ의 소리 세기 차이를 설명하므로 가획의 원리와 연결된다.

핵심 개념

상형은 기본자를 만들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원리이다. 가획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세지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목구멍소리 계열에서는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해 ㆆ을 만들고, 다시 획을 더해 ㅎ을 만들었으므로 ㆆ은 ㅎ보다 여린 소리를 나타낸다. 종성은 초성자를 다시 쓰는 종성부용초성의 원리를 따르고, 기본 모음은 하늘·땅·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초성 기본자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다는 설명은 상형 원리에 해당한다. 밑줄 친 부분에 맞게 고치면 '초성자는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센 글자를 만든다'이다.
② O — 기본자에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지는 가획 원리를 설명한다. ㅇ에서 ㆆ, ㅎ으로 획이 더해지며 소리가 세지므로 ㆆ이 ㅎ보다 여리다는 밑줄 친 설명에 가장 잘 부합한다.
③ X —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종성부용초성의 원리이다. 밑줄 친 부분에 맞게 고치면 '초성자는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센 글자를 만든다'이다.
④ X — 중성 기본자를 하늘·땅·사람을 본떠 만든다는 것은 모음의 상형 원리이다. 밑줄 친 부분에 맞게 고치면 '초성자는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센 글자를 만든다'이다.
⑤ X — 초성·중성·종성을 합쳐 한 음절의 글자를 이루는 것은 음절자의 결합 방식이다. 밑줄 친 부분에 맞게 고치면 '초성자는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센 글자를 만든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 ③, ④, ⑤도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와 관련된 설명이지만, 밑줄 친 'ㆆ이 ㅎ보다 여리다'의 근거를 직접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문항은 선지 자체의 일반적 사실 여부가 아니라 밑줄 친 내용과 대응하는 제자 원리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으면 상형, 획을 더하면서 소리가 세졌으면 가획, 초성자를 받침에도 썼으면 종성부용초성, 하늘·땅·사람을 본떴으면 모음의 상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음 기본자는 상형, 더 센 소리는 가획이다. 목구멍소리는 ㅇ → ㆆ → ㅎ의 순서로 획과 소리의 세기가 더해진다.

NoteBase

14. 다음 밑줄 친 ㉠~㉤을 두 부류로 나눌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허기가 져 급히 먹는 ㉠바람에 체했다.
> 약 ㉡바람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 어머니는 버선 ㉢바람으로 아들을 맞았다.
>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화 ㉣바람이 불어닥쳤다.
> 출발 신호음이 떨어지자 선수들은 ㉤바람같이 내달았다.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바람'이 앞말에 기대어 특정한 뜻을 나타내는 제한적 용법인지, 독립된 일반 명사로 쓰인 용법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 '바람'은 앞말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각각 원인·영향·차림을 나타낸다. ㉠은 '급히 먹은 탓에', ㉡은 '약의 영향으로', ㉢은 '버선만 신은 차림으로'라는 뜻이다.
㉣~㉤의 '바람'은 일반 명사로 쓰인다. ㉣은 사회에 퍼지는 유행이나 경향, ㉤은 공기의 움직임인 바람을 뜻한다.
따라서 ㉠·㉡·㉢과 ㉣·㉤으로 나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은 앞말과 결합하여 원인·영향·차림을 나타내고, ㉣·㉤은 각각 사회적 경향과 공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이므로 분류가 적절하다.
② X — ㉣을 ㉠·㉡과 한 부류에 넣고 ㉢을 ㉤과 묶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 / ㉣·㉤이다.
③ X — ㉠을 ㉤과 묶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은 원인을 나타내는 제한적 용법이고, ㉤은 공기의 움직임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다. 올바르게는 ㉠·㉡·㉢ / ㉣·㉤이다.
④ X — ㉡을 ㉣·㉤과 묶고 ㉠·㉢과 갈라놓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은 약의 영향을 뜻하여 ㉠·㉢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 / ㉣·㉤이다.
⑤ X — ㉢을 ㉣·㉤과 묶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은 버선만 신은 차림을 나타내므로 ㉠·㉡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올바르게는 ㉠·㉡·㉢ / ㉣·㉤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의 '서구화 바람'도 앞에 명사가 놓여 있어 ㉡의 '약 바람', ㉢의 '버선 바람'과 겉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나 ㉣의 '바람'은 사회적 유행이나 경향이라는 독립된 뜻을 지니고, ㉡·㉢은 앞말과 결합하여 영향과 차림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바람'을 문맥에 맞는 말로 바꾸어 본다. '탓에·영향으로·차림으로'로 바뀌면 앞말에 기대는 제한적 용법이고, '유행·경향'이나 '공기의 움직임' 자체를 가리키면 일반 명사 용법이다.

암기 포인트

탓·영향·차림은 ㉠㉡㉢, 경향·공기는 ㉣㉤이다.

NoteBase

15. 다음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나는 할머니께 맛있는 과자를 드렸다.
> ㉡ 할머니께서는 내가 드린 과자를 잘 잡수셨다.

① ㉠, ㉡에는 모두 객체를 높이는 문법 형태소가 있다.
② ㉠, ㉡에는 모두 주격 조사가 있다.
③ ㉠, ㉡에는 모두 자동사가 있다.
④ ㉠, ㉡에는 모두 주체 높임의 어미가 있다.
⑤ ㉠, ㉡에는 모두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높임 표현에 쓰인 조사·어휘·선어말 어미와 동사의 자·타동사 여부를 구별하고, 두 문장에 공통으로 쓰인 시제 형태소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고,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다.
주격 조사는 주어임을 나타내며, '께서'는 높임의 주격 조사이다. '께'는 높여야 할 대상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ㄱ, ㄴ에는 모두 객체를 높이는 문법 형태소가 있다'이다. ㄱ의 '께'는 부사어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의 조사이지만, ㄴ의 '께서'는 주어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이다. 올바르게는 'ㄱ에는 객체를 높이는 조사 '께'가 있고, ㄴ에는 주체를 높이는 주격 조사 '께서'가 있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모두 주격 조사가 있다'이다. ㄴ의 '할머니께서는'에는 주격 조사 '께서'에 보조사 '는'이 결합해 있지만, ㄱ의 '할머니께'에 쓰인 '께'는 부사격 조사이다. 올바르게는 'ㄴ에는 주격 조사 '께서'가 있고, ㄱ에는 부사격 조사 '께'가 있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모두 자동사가 있다'이다. '드리다'와 '잡수시다'는 각각 목적어 '맛있는 과자를', '내가 드린 과자를'을 취하므로 모두 타동사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에는 모두 타동사가 있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모두 주체 높임의 어미가 있다'이다. ㄴ의 '잡수셨다'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있지만, ㄱ의 '드렸다'에는 '-시-'가 없다. ㄱ의 '드리다'는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올바르게는 'ㄴ에는 주체 높임의 어미 '-시-'가 있고, ㄱ에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드리다'가 있다'이다.
⑤ O — ㄱ의 '드리-었-다'와 ㄴ의 '잡수시-었-다'에는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있다.

오답 포인트

'께'와 '께서'를 모두 높임 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능으로 보면 안 된다. ㄱ의 '께'는 부사격 조사로 객체 높임에 관여하고, ㄴ의 '께서'는 주격 조사로 주체 높임에 관여한다. 또한 높임의 특수 어휘인 '드리다'를 주체 높임의 어미가 쓰인 말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조사와 어미의 형태를 분리한 뒤 문장 성분을 확인한다. '께'는 부사격 조사, '께서'는 주격 조사, '-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로 판단한다. 동사 앞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께'는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 '께서'는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 '-시-'는 주체 높임, '-었-'은 과거 시제이다.

NoteBase

16. 다음 글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전 시가 작품의 주제 중에는 임에 대한 사랑이 많다. 사랑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주제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임에 대한 사랑은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비유나 상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된다.

① 대쵸 볼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 벼 뷘 그르헤 게ᄂᆞᆫ 어이 ᄂᆞ리ᄂᆞᆫ고 / 술 닉쟈 체쟝ᄉᆞ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② 옥으로 연고즐 사교이다 / 옥으로 연고즐 사교이다 / 바회 우희 접듀(接主)ᄒᆞ요이다 / 그 고지 삼동이 퓌거시아 / 그 고지 삼동이 퓌거시아 / 유덕(有德)ᄒᆞ신 니믈 여히ᄋᆞ와지이다

③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④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드니 /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듸 업다 /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ᄒᆞ노라

⑤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를 바라보니 / 그리던 님이 온들 반가옴이 이러하랴 /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전 시가에서 자연물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임에 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헤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대신 자연물, 상징, 불가능한 조건 등에 그 마음을 담는다. ②는 옥으로 만든 연꽃이 바위 위에서 한겨울에 피어야만 임과 헤어지겠다고 하므로, 실제로는 임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추와 밤, 벼를 벤 논의 게, 익은 술을 차례로 제시하여 풍요로운 농촌 생활과 술 마시는 흥취를 드러낸다. 이를 임에 대한 사랑으로 보는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전원생활의 풍요와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② O — 옥으로 만든 연꽃이 바위 위에서 한겨울에 피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다는 말은 임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X —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누구를 맞히려던 것인지도 모르는 돌을 맞고 운다는 내용이다. 이를 임에 대한 사랑으로 보는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까닭 없이 겪는 삶의 고통과 비애를 드러낸 작품이다.

④ X —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는 옛 도읍의 산천은 그대로이나 인물은 사라진 현실을 대비한다. 이를 임에 대한 사랑으로 보는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고려의 멸망과 지난 태평성대에 대한 회고 및 무상감을 노래한 작품이다.

⑤ X — '그리던 님'은 먼 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며, 화자가 실제로 좋아하는 대상은 말도 웃음도 없는 먼 산이다. 이를 임에 대한 사랑의 노래로 보는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자연을 사람처럼 대하며 즐기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 작품이다.

오답 포인트

⑤에 '그리던 님'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연정의 노래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 표현은 먼 산을 그리던 임보다도 반갑게 여긴다는 비교이므로 중심 정서는 자연애이다. 반대로 ②의 핵심은 비현실적인 '한겨울의 옥연꽃'이 영원한 이별 거부를 상징한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님'이라는 낱말의 유무만 보지 않고 화자가 끝까지 지향하는 대상과 자연물의 역할을 확인한다. 불가능한 자연 현상이 이별의 조건으로 제시되면 '그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헤어지지 않겠다'는 영원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암기 포인트

한겨울의 옥 연꽃은 불가능한 조건이고, 불가능한 조건 뒤의 이별은 곧 영원한 사랑이다.

NoteBase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것일지라도 결코 허투른,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
>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적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메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① 시공간적 배경이 제시되며 전체적인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③ 단순한 갈등이 복잡화되면서 사건 전개가 긴밀해진다.
④ 주인공 내면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주제 의식이 부각된다.
⑤ 전체적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극적 긴장감이 해소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장면이 서사 구성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며 그 단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사의 결말은 전개된 사건과 갈등이 마무리되고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이다. 발단은 배경과 인물을 제시하고, 전개는 사건과 갈등을 본격화하며, 위기는 갈등을 심화하고, 절정은 갈등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 글에서는 총성이 지나간 뒤 인물의 의식이 어두워지고 남은 사람들이 본부로 돌아갈 상황까지 서술되므로 사건의 종결이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문은 시공간적 배경을 처음 소개하는 발단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전체적인 도입부의 역할'이며, 올바르게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말의 역할을 한다.
② X —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새로 시작되는 장면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갈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이미 벌어진 사건과 갈등이 종결된다.
③ X — 단순한 갈등이 복잡해지며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위기 단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갈등이 복잡화되면서 사건 전개가 긴밀해진다'이며, 올바르게는 인물의 의식이 흐려지고 사건 뒤의 상황이 제시되면서 전개가 마무리된다.
④ X — 주인공의 내면 갈등이 극대화되거나 주제 의식이 부각되는 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내면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주제 의식이 부각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인물의 의식이 어두워지고 사건이 끝나는 결말이 제시된다.
⑤ O —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총을 거꾸로 메고 본부로 돌아갈 것이라는 서술, 점점 어두워지는 의식은 전체 사건이 마무리되고 극적 긴장감이 해소되는 결말의 특징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첫 문단의 총성, 충격, 발자국 소리만 보면 긴장이 높아지는 절정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와 인물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는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갈등의 고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사건의 종결을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면의 자극적인 표현만 보지 않고 사건의 상태를 확인한다. 배경과 인물이 처음 제시되면 발단, 갈등이 본격화되면 전개, 갈등이 심화되면 위기,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 절정, 사건의 결과가 제시되고 긴장이 풀리면 결말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건 종결과 긴장 해소는 결말의 핵심 기능이다.

NoteBase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의
>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
> 초롱이 불빛 지친 밤하늘
> 굽이굽이 은핫물 목이 젖은 새
>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① 우리나라 전래의 설화를 소재로 애잔한 정서를 노래했다.
② 버림받은 여인의 절망을 전통적 정서와 가락으로 노래했다.
③ 고유의 한과 체념을 여성적인 애절한 어조로 노래했다.
④ 여인의 정절을 소재로 강인한 삶의 의지를 노래했다.
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님에 대한 원망을 은근하게 노래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드러난 화자의 처지와 정서, 어조를 시구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님을 애타게 부르며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다시 오진 못하는',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에는 님과의 영원한 이별에서 비롯된 한과 체념이 나타나며, 이를 여성적이고 애절한 어조로 노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우리나라 전래의 설화'이다. '귀촉도'는 죽어서 두견새가 되었다는 중국 촉나라 망제 설화와 관련되므로, 우리나라 전래 설화를 소재로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X
틀린 표현은 '버림받은 여인'이다. 화자는 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님과 헤어진 처지이다. 올바르게는 님과 사별한 화자의 절망과 그리움을 전통적인 정서와 가락으로 노래했다고 해야 한다.

③ O
'다시 오진 못하는'에는 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귀촉도 운다'와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에는 사별의 한과 슬픔이 드러난다. 또한 님을 애타게 부르는 표현과 반복되는 울음의 이미지에서 여성적이고 애절한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여인의 정절'과 '강인한 삶의 의지'이다. 화자가 보이는 것은 정절을 지키며 삶을 이겨 내려는 의지가 아니라, 죽은 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비통함이다. 올바르게는 님의 죽음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노래했다고 해야 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님에 대한 원망'이다.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님을 탓하지 않고 애타게 부르며 그리워한다. 올바르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님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애절하게 노래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화자가 님과 헤어졌다는 사실만 보고 ②의 '버림받은'이나 ⑤의 '원망'으로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피리 불고 가신', '다시 오진 못하는', '귀촉도 운다' 등의 시구는 님의 죽음과 사별의 슬픔을 가리키며, 원망이나 강인한 삶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처지는 '다시 오지 못하는 님'과 '하늘 끝'에서 사별로 판단하고, 정서는 반복되는 부름과 눈물·울음의 이미지에서 슬픔과 그리움으로 판단한다. 선지의 '설화', '버림', '강인한 의지', '원망'처럼 시구에서 확인되지 않는 원인을 덧붙인 표현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돌아오지 못하는 님을 부름 → 사별의 한·그리움·체념 → 여성적이고 애절한 어조이다.

NoteBase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초시의 소위 ㉠영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참의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 원을 서참의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끽끽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의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ㅡ 후ㅡ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헴……."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문 이만 호살 해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흙……."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의와 박희완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19.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초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② 안경화는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다.
③ 안초시, 서참의, 박희완 영감은 친구 사이다.
④ 박희완 영감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다.
⑤ 서참의는 안경화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글에 직접 제시된 사실과 인물의 말·행동·주변 상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는 글에 명시된 정보나 그 정보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글에 근거가 없는 사망 원인처럼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면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안초시의 영결식이 열렸다는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만, 안초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은 글에 없다. 틀린 표현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이다. 올바르게는 '안초시의 장례가 열렸으나 사망 원인은 글에서 알 수 없다'이다.

② O
조객들 가운데 고인을 알지 못하면서 무용가 안경화를 보러 온 듯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안경화를 알아보는 모습도 나타난다. 따라서 안경화는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③ O
안초시의 영결식에 서참의가 참석하고, 서참의와 박희완 영감도 함께 술을 마신 뒤 묘지까지 가려고 한다. 이들의 관계와 행동을 통해 세 사람이 친구 사이임을 알 수 있다.

④ O
박희완 영감이 무언가를 잡혀서 2원을 마련해 왔다는 대목이 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전당 잡힌 행동에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⑤ O
서참의는 안경화를 '계집애'라고 낮추어 부르며 못마땅한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서참의가 안경화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영결식'만 보고 사망 원인까지 '불의의 사고'로 확대하는 것이 함정이다. 장례가 열렸다는 사실은 죽음의 원인을 알려 주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정보를 글에서 직접 찾고,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면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필연적이거나 자연스럽게 추론되는지 확인한다. 근거 없이 원인·시기·관계를 새로 덧붙인 선지는 배제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장례가 열림’은 사망 사실의 근거일 뿐 ‘사망 원인’의 근거는 아니다.

NoteBase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초시의 소위 ㉠영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참의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 원을 서참의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끽끽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의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ㅡ 후ㅡ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헴……."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문 이만 호살 해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흙……."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의와 박희완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20. 다음 중 ㉠, ㉡,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 永訣式 ㉡ 附議 ㉢ 弔詞
② ㉠ 永決式 ㉡ 賻儀 ㉢ 弔辭
③ ㉠ 永訣式 ㉡ 附議 ㉢ 弔辭
④ ㉠ 永訣式 ㉡ 賻儀 ㉢ 弔辭
⑤ ㉠ 永決式 ㉡ 附議 ㉢ 弔詞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고, 같은 음을 가진 한자 가운데 알맞은 글자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결식(永訣式): 죽은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이다. '이별하다'라는 뜻의 訣을 쓴다.
부의(賻儀): 초상집에 보내는 돈이나 물품을 뜻한다. 지문에서 박희완과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대상은 장례를 돕는 부의이다. 附議는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조사(弔辭):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조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나 글이다. 지문에서 서참의가 고인에게 말을 건넨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附議가 틀렸다. 附議는 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것이므로, 초상집에 가져온 돈이나 물품이라는 문맥에서는 賻儀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의 永決式이 틀렸다. 장례에서 영원한 이별을 뜻하므로 '결정할 결(決)'이 아니라 '이별할 결(訣)'을 써서 永訣式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의 附議가 틀렸다. 장례를 돕기 위해 보내는 돈이나 물품은 賻儀이므로 附議를 賻儀로 고쳐야 한다.
④ O — ㉠ 영결식은 永訣式, ㉡ 부의는 賻儀, ㉢ 조사는 弔辭로 적는다. 세 표기가 모두 지문의 뜻과 맞는다.
⑤ X — ㉠의 永決式과 ㉡의 附議가 틀렸다. 각각 永訣式과 賻儀로 고쳐야 하며, 이 문맥의 ㉢ 조사는 弔辭로 적는다.

오답 포인트

'영결식'의 '결'을 결정의 決로, '부의'를 회의에 안건을 부친다는 附議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②는 賻儀와 弔辭가 맞지만 永決式 한 글자가 틀린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음을 그대로 맞추기보다 지문의 상황과 한자의 뜻을 연결한다. 장례의 영원한 이별은 訣, 초상집에 보내는 돈이나 물품은 賻儀, 고인을 슬퍼하는 말이나 글은 弔辭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영원한 이별은 永訣, 장례 부조는 賻儀, 고인을 기리는 말은 弔辭이다.

NoteBase